

# 일본에서 유학자의 일 양태

## — 에도시대 전기의 린계 —

荻生 茂博(오규 시게히로)\*

### 도입부

린계(林家)는 林信勝(羅山) 이래, 에도 막부에서 세습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학자 가문이었다.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일본에서 유학의 특징적 존재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 발표의 결론도 그러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 종래의 일본사상사 연구에서는 린계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종래의 사상사 연구가 근대주의적 편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에도시대를 살았던 유학자의 한 존재 양태로서 린계에 주목하고, 그들의 존재 양상 및 일본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린계 자신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있다.

에도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役人の 직위가 미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수시로 경우에 맞추어 부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린계의 세습적 지위는 오랜 기간에 걸친 집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또, 전통사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정치 개혁 내지는 직무의 변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린계, 보다 넓게는 일본 유교의 존재 양상은 ‘寬政의 改革’을 거치면서 크게 변모한다. 따라서 본 발표는 年譜를 참조하면서, ‘寬政의-改革’에 이르기까지의 린계의 사적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본 발표의 내용은 『寬政重輯家譜』와 『徳川實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 두 문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근세사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사료이지만, 둘 다 막부의 명령에 의해 린계(述齋)의 학자가 편찬한 사료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두 문서이외에도 린계에 속하는 역대 인물의 사적

\* 山形縣立米澤 短期女子大學 조교수

을 기술할 때에 사용되는 문서로서 『林氏畧譜』(自筆寫本), 『林氏家系』(『日本教育史資料』7所收)이 있다. 또, 개별적 인물에 대해서는 하야시 라잔(林羅山) 『年譜』, 『行狀』(『林羅山集附錄』卷一, 二, 三) 및 『鳳岡先生年譜』, 『마봉림선생자서연략』, 『讀耕林子年譜』, 『定先生事實』(『本朝通鑑』首卷附錄) 등이 있다. 이런 연보류는 모두가 린계의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료의 음미가 요청된다. 쓰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료가 린계의 자기표명이며, 나아가 당시에 이미 공인된 기록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용하는 경우 그것 자체가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 가계의 기록이 공인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 속에서 분명해 질 것이다.

부록으로, 린계의 初代 인물인 노부가츠(信勝, 羅山)에서 八代 타이라(衝, 述齋)에 이르는 린계의 계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린계의 계보적 변천을 다음과 같이 5기로 나누어 개관하고, 각 시기 마다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第1期 1605(慶長10)년에서 1634(寬永11)년

第2期 1634(寬永11)년에서 1656(明曆 2)년

第3期 1657(明曆 3)년에서 1680(延寶 8)년

第4期 1680(延寶 8)년에서 1758(寬曆 5)년

第5期 1758(寬曆 8)년에서 1793(寬政 5)년

第1期는 初代 노부가츠(羅山)가 막부에 출사한 후, 일가 전체가 에도(현재의 동경)로 이주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第2期는 그 이후 라잔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시기이며, 第3期는 二代 春勝(春齋)가 當主가 되는 時代이며, 第4期는 三代 노부가츠(信篤)가 가계를 상속한 이후부터 四代 노부미츠(信充)를 거쳐 五代 노부도키(信言)가 상속하기까지의 시기이다. 第6期는 노부도키 이후 八代 타이라(衝, 述齋)가 계를 잇기까지의 시기로 설정한다.

길론을 먼저 말하자면, 막번 체제 국가의 독자성은 우선적으로 체제의 하위에 속하는 여러 단체가 자율적인 권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찾아 질 수 있다. 지배자 내부의 권력 구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무사(사무라이)는 장군(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주종제의 위계질서 안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농공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막번제 국가는 <家, 이에>를 단위로 삼는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무사의 주종관계는 主家와 臣家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주종 관계 하나하나를 살펴 보면 주군 및 신하의 인격 내지는 연령이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물론 막번제 국가는 고도의 관료제를 정비하고 있었기에 인격적인 주종 관계는 점차 희박해 졌지만, 권력의 중추 내지 무사계급의 상층부에서는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主君의 개인적 특징이 좁게는 그들의 운명(가운)을, 넓게는 일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상기의 시기 구분은 린계의 당주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장군 권력의 변천에 근거해서 제시되는 정치사의 시대구분과 그것이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하는 사실이다. 장군의 이름을 근거로 정치사의 시대구분이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장군의 인격에 담긴 정치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아가 생몰 연대 등 우연적인 요소까지 포함하여 장군의 인격이 지닌 정치성이 각 시기의 린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우리는 막부 유학자 린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특징 가운데 린계의 막부 내에서의 위치 및 린계가 막부의 정치에 미친 영향 등을 엿볼 수 있다.

第1期 <儒臣林家創出期> 1605(慶長 10)年~1634(寬永11)年  
 初代信勝(羅山)の出仕から一家の江戸移住まで  
 信勝と信徴兄弟の出仕

【大御所時代=徳川將軍權力創出期】

1603(慶長 8)年 家康, 征夷大將軍=「江戸時代」の開始  
 1605(慶長10)年 秀忠, 將軍職に 大御所時代① 駿府・江戸  
 1623(元和 9)年 家光, 將軍職に 大御所時代②  
 1632(寬永 9)年 秀忠, 沒  
 徳川一族/(外様)大名/朝廷//外國(特に朝鮮)

1605(慶長10)年, 노부가츠(信勝)는 上洛中の 도쿠가와 이에야스(家康)에게 처음으로 배알하였다. 린계와 도쿠가와계의 관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第 1期の 린계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이 이 사건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

①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봉건적인 주종관계는 臣從의 禮에 의해 개시된다. 라잔과 이에야스의 관계도 봉건적 주종제의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禮는 단순한 인사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3年後, 라잔은 이에야스의 명령에 따라 삭발하고 道春으로 改名하였다. 그리고, '駿府'에 주재하는 조건으로 (寬政譜) 300 俵의 俸祿米와 주거를 받았다. 이때부터 라잔은 실제로 이에야스의 봉건 가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俸祿米와 성밖에 위치한 주거의 급부야말로 에도 시대의 봉건적 급부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라잔은 1612(同17)년까지는 쿄오토의 자기 집과 이에야스 사이를 왕복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는 아직 생활상의 중세적 자울을 잃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학자가 삭발하고 승려의 이름을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유교의 이념에서 보자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라잔은 이 점에서 다른 유자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일본에서는 중세부터 다이묘(大名)의 측근에 있는 禪僧이 政治와 外交방면의 顧問으로서 활동 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에야스는 라잔을 동용하여 그런 역할을 맡긴 것이고, 라잔은 그러한 요구를 수락했던 것이다. 라잔은 자기의 학문, 특히 '주자학'을 점차 체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굴욕을 감수하였던 것이다.

② 봉건적 주종관계는 본래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였다. 라잔은 이에야스에게 臣從했으나, 이때의 이에야스는 이미 장군의 신분이 아니었고 따라서 도쿠가와 집안이 에도의 막부를 열기 이전의 본거지였던 駿府(現, 靜岡市)에 머무르고 있었다. 라잔은 그의 동생 신증을 將軍 秀忠에게 소개하여 일하게 했다. 1612(慶長17)年, 라잔은 결혼을 계기로 쿄오토 부근에 知行地(封土)를 하사 받고 駿府로 거처를 옮겼다. 동시에 신증은 에도 부근의 무사시노 쿠니(武藏國)에 知行地를 하사 받아 에도에서 직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신증도 물론 삭발하고 永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단계에서 린계의 형제는 각각 駿府의 家康와 江戸의 秀忠 아래에서 매일 시중을 드는 체제가 성립하였다.

한편, 이에야스는 1603(慶長8)년에 征夷大將軍이 되어 자기의 권력을 막부 국가 체제안에 위치 지웠지만, 1605(同 10)년에는 장군직을 秀忠에게 물려주고 駿府에서 幕府를 후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오오고쇼 정치」(大御所政治)라고 부른다. 二代 將軍 秀忠도 이에야스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소군 자리를 아들인 家光에게 물려주고 1632(寬永9)年 죽기 전까지 「오오고쇼 정치」를 실행했다. 이 시기 동안 도쿠가와 가문은 내전에서 승리한 결과 막부를 열 수 있었지만, 전국의 대명을 그의 지배하에 두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 이 당시 사무라이 사회에서는 상속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도쿠가와 일족 가운 데에서도 종가의 지위가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야스의 정권은 개인의 무장으로서의 힘

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에야스의 장군직 양도는 당시의 정세로 미루어 볼 때, 장군직 세습의 선언이었다. 이 대에 걸친 「오소고쇼 정치」는 장군직의 계승에 따른 도쿠가와 권력의 안팎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혼란, 즉 모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고 말해진다. 린계의 第1期는 이러한 이 대에 걸친 「오소고쇼 정치」의 시대를 포함하여 家康, 秀忠의 치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잔(信勝)이 이에야스에게, 그리고 신증이 秀忠에게 베푼 것은 이에야스의 전략이었던 것과 동시에 린계의 영속화를 모색하는 라잔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라잔의 행동은 라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막부=장군가에 베푼었던 린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라잔(信勝)이 이에야스에게 불려간 것은 이에야스가 秀忠에게 장군직을 넘겨주기 위해 교토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다. 장군직은 고대 율령제의 형식에 따라 천황에게서 받는 것이었다.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의 붕괴이래, 여러 다이묘(大名)가 교토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戰國時代). 에도 시대에 덴노(天皇)은 완전히 막부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었으나, 장군직의 근거로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도 하였다. 第1期는 바쿠후가 교토를 중심으로 삼는 전통적인 권위를 한편으로 흡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용하여 그것을 자기의 권력 구조 안에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에도시대의 상급 사무라이는, 율령제에 따른 관위체계를 사회적 지위의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고 있었다. (장군직은 普通正二位에서 從一位, 上級武士는 從五位以上을 가리킨다). 1520(元和6)년 사무라이에게 官位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쇼군이 장악하게 된 것은 중대한 하나의 지표로 여겨진다. 라잔(羅山)이 이에야스에게 등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군이 새로운 「전통」 문화의 계승자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장군을 돕게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바쿠후가 추구했던 새로운 「전통」이란 불교를 대치하는 주자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자학 내지 신유교를 정치사상으로 채용했던 ‘한-藩’도 있었다.) 라잔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정확한 典故에 바탕을 둔 고급의 제도문물을 현실에 운용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라잔이 廩米를 받기 시작했을 당시의 임무는 문고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1615년 토요토미 가문(豊臣家)을 멸망시키고 막부가 최종적으로 국내를 통일하였을 때, 라잔에게 부여된 임무는 교토에 남아 있던 옛 기록을 베끼는 일이었다. 즉, 바쿠후의 도서관장의 직책이 라잔의 기본적 직책이었던 것이다. 또, 라잔이 이에야스에게 배알 한 이후 처음으로 주어졌던 임무는 히데요시가 벌였던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조선으로부터의

평화교섭사를 접대하는 일이었다. 외교는 무로마치 바쿠후 시대에 선승이 담당하였지만, 에도 정권에서는 린계를 필두로 바쿠후 유자의 직무가 되었다. 라잔이 삭발을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이지만, 초기의 린계에 부여된 율령체제에 따른 관명은 法印이라는 승려의 자리였다.

第2期 《「家職」 形成期》 1634(寬永11)年から 1656(明曆 2)年

信勝(羅山)의 死~(73歲)까지

信勝(羅山)과 春勝(春齋)·守勝(春德, 讀耕齋) 兄弟의 出仕

【家光政權時代：1633(寬永10)~1662(寬文 2)】

將軍(德川嫡流)을 頂點으로 外양상 大名을 포섭하는 幕府體制의 基礎가 다져진다.  
旗本(將軍直屬의 武士團)의 統制 및 強化. 그것에 근거한 다이묘의 臣從化를 가  
촉진됨.

幕府支配體制의 法制화, 무사의 家格에 따른 서열화(官僚制와 身分制).

1634(寬永11)年 家光, 上洛

1635(寬永12)年 評定所整備, 春齋·春德出仕

1642(寬永19)年 무사의 「世祿」 制의 法制的 명시

1642(寬永18)年 『寬永諸家系圖傳』

1644(寬永21)年 『本朝編年錄』 編纂을 명함.

1651(慶安 4)年 家光沒(48才), 將軍家綱 (11才)

羅山은 家康부터의 老臣 그룹에 위치함.

1634年 라잔은 그의 두 아들 하루가츠(春勝)(17歲)와 모리가츠(守勝)(11歲)를 장군에게 배알시킬 것을 바쿠후의 각료회의에 청원하고, 마침내 전 가족을 데리고 에도로 이주하였다.

그 두 아들은 삭발하여 법안의 직위를 받고 춘재, 춘덕이라는 이름을 얻어 바쿠후에 출사하였다(系圖參照).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① 春齋(春勝)의 역무에 대해 년보에서는 “가업의 실습”(家業見習)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② 春德(守勝, 그의 儒者로서의 호는 讀耕齋)에서 린계의 분가가 시작되는 사실, 두 가지이다.

第2期는 「오오고쇼 정치」를 해소시킨 이후 실질적으로 전개된 三代 將軍 이에미츠(家光)의 치세기와 겹친다. 이에미츠 정권의 역사적 특징은 장군가(將軍家, 德川 嫡流)를 정점으로 하면서, 다이묘들을 포섭하는 에도시대의 지배체제의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미츠는 1634년에 上洛(천황이 있는 교토에 인사하러 가는 것)한 이래 다시 교토에 가지않았다. 쇼오군의 上洛은 이렇게 바쿠후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끊어졌고, 오히려 조정의 사절이 바쿠후에 인사를 드리는 형태가 되었다. 바쿠후 안에서는 지배 기구의 법제화와 함께 무사의 “家格”(가문의 계급)에 근거한 서열차가 진행되었다. 1642(寬永19)年 武士의 「世祿」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근세 무사 사회에서 상속의 기본은 長子(정확하게 말하면, 배알의 의례를 통해 주군에게 확인을 받은 ‘적자’)의 단독상속이었으며, 그 본질은 ‘조상의 공훈에 기초한 봉록의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제부터 쇼오군에게 臣從하였는가, 전장에서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는가 등에 의해 결정된 조상의 봉록이 평화의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이 자자손손 상속되었다. “家格”은 봉록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에도성 내에서의 석차, 복장, 주거의 장식 등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전장이 사라진 에도 시대의 무사들은 이러한 “가격” 사회 안에서 생을 영위했던 것이다.

第2期 동안의 린계의 이대사업은 『寬永諸家系圖傳』과 『本朝編年錄』의 편찬이었다. 前者는 토쿠가와가에서 일하는 모든 무사의 由緒, 嫡庶 등을 밝히고 있는 말하자면, “가격”에 관한 장부였다 그것은 바쿠후에 의해 관리되고 인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족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리고, 바쿠후 권력의 내부에서 그것의 편찬을 담당할 주체가 다른 린계였다.

『本朝編年錄』은 律令制의 崩壞와 함께 단절된 일본의 정사를 계속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神祖」 이에야스의 역사적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쿠가와 가문에 의한 바쿠후가 왕조를 대신하는 공식적인 권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린계는 이것을 「家業」으로 삼고, 편찬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보이는 린계 역사학의 특징은 사료의 광범한 수집과 실증적 검증의 정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第2期の 린계(林家)는 장군가를 정점으로 하는 “이에=家” 사회의 확정이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참여하였고, 그것을 공무 내지는 가업으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①②는 자신의 “이에”를 확정하는 동시대적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年譜類에 보이는 第2期에 있어서의 린계의 직위를 제시한다. 이것을

통해, 린계가 어떻게 장군가와 막부의 「전통」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 日光東照宮(德川家の廟)

- 1636 神廟再造營、家光の社參に御供。『東照宮神廟記』奉撰。
- 1640 家康二十五回忌、家光社參に御供。『齋會記』『東照二十五年御忌記』奉撰。
- 1645 家康・秀忠の官位の宣命宣旨位記等を校定。日光山神庫を調査。
- 1646 「日光山の密事を議す」 鷲峯、羅山に代わって日光山の朱印狀を宣讀。翌日「家業出精」により褒美、宅地拜領。
- 1648 家康三十三回忌の大法會法華八講、家光の社參に御供。『東照宮三十三回記』奉撰。鷲峯も法會の記と圖を奉撰。
- 1651 家光沒。日光山に赴き、院號を議す。
- 1652 鷲峯、日光山の法度を定める。
- 1653 家光三回忌。
- 1655 鷲峯、日光山の法度を携え東叡山寛永寺(將軍家の菩提寺)に赴く。

B. 家綱(將軍の繼嗣)

- 1642 山王社(德川家の氏神)に初參り。『若君様御宮參記』奉撰。
- 1644 諱を撰定
- 1645 元服、『御元服記』奉撰。
- 1651 將軍宣下、羅山・鷲峯「秘事を議す」。

C. 天皇 1643 後光明天皇即位、辰記を撰。

D. 改元 1644 正保／1652 承應／1655 明曆

E. 寺社 1636 『伊勢内外宮勘文』奉撰。

- 1636 全國の寺社への朱印狀を議す。
- 1645 高野山の訴論を議す。

F. 外交

- 1635 朝鮮外交、「柳川一件」に列席。
- 1636 朝鮮通信使への儀式規則を定める。
- 1643 朝鮮通信使來聘。『朝鮮人來聘始末記』撰。
- 1645 朝鮮よりの書簡を議す。



1647 明よりの援軍要請の書簡を議す。

1655 朝鮮通信使來聘。

G. 法度(寺社以外)

1635 『和漢法制』奉撰

1635 武家諸法度・諸士法度を起草

1636 『和漢荒政恤民法制』奉撰。

H. 文事

1639 『無極而太極說』奉撰。

1651 『大學倭字抄』『貞觀政要諺解』奉撰。

1654 『漢魏六朝唐宋百人一詩』『歷代三十六名臣圖讚』奉撰。

1656 家綱に將軍就任後最初の講義(『大學』三綱領)

I. 醫事

1637 家光の病氣に仕える。

1637 藥園が開かれたことによって、和漢の勘文を奉撰。

J. 史書

1655 鷲峯、『日本百將傳抄』奉撰。

1641 『諸家系譜』官選の御用(翌年完成)

1641 『本朝神代帝王系譜圖』、『中朝帝王譜』(讀耕齋代筆)、『鎌倉將軍譜』、『京都將軍譜』、『織田將軍譜』、『豊臣將軍譜』(讀耕齋代筆)奉撰

1644 『本朝編年譜』官選の命。

第3期《二代目、鷲峯(春齋)の當主時代》……1657(明曆3)年~1680(延寶)8年

1657(明曆3)年 鷲峯、林家を相續(40歳)

1663(寛文3)年 鷲峯、弘文院學士號を賜る

1671(寛文11)年 『本朝通鑑』献上

1680(延寶8)年 鷲峯、老病致仕(隱居)、老養料300俵を賜る。同年、没(67歳)

【家綱政權時代】：

1663(寛文3)日光社參、新武家諸法度、諸士法度の發布……實質的な家綱政權の開始

1680(延寶8)年、家綱(40歳)没 個性の時代から〈家格〉の時代に

1663(寛文3)年 春齋는 오랫동안 가숙에서 계속되어온 五經의 강의를 끝마친 것을 기념하여 褒賞을 받고, 弘文院學士號를 받았다. 이것은 法印位와 관련된 린계의 공식 칭호가 되었다. 1671년에는 『本朝編年錄』이 『本朝通鑑』으로 이름을 바꾸어 30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되었다. 第3期에서는 린계의 별장 안에 『國史館』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편찬사업에 종사하는 塾生, 職員에게는 관비가 지급되고 林家塾은 사적인 학교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德川政權의 공권력화에 부수하여, 그것에 봉사하는 린계도 역시 공적인 지위를 접하게 된 것이다.

第3期는 4대 將軍家康의 시대와 거의 겹친다. 1663(寛文3)年, 이에미즈(家光)가 죽고 장군직을 계승한 가강은 아직 열한 살의 어린이었다. 이제 사회는 개성에 넘치는 주군의 시대로부터 어린 장군을 넘기는 시대, 즉 영속하는 “이에”를 단위로 삼는 의례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장군이 교체될 때마다, 무사를 통제하는 기본법령이었던 『武家諸法度』 『諸士法度』가 다시금 선포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하는데서 선포하는 직무는 라잔 이래 린계에 속하였다. 신법령의 특징은 『不孝之輩於有之者, 可處罪科事』라고 하는 불효 조항, 『家業無油斷可相勤事』라는 가업조항이 덧붙여진 점이었다. “이에”의 안정적 계승이 시대의 요청이었던 것이다. 春齋도 린계의 제2대로서 선대에서 물려받은 『본조통감』을 완성하는 데에 일생을 바쳐야 했다.

第4期 《林家「安定」の時代》……1680(延寶8)年~1758(寶曆8)年

三代信篤(鳳岡)の家督相續から、四代信充(榴岡)をへて、五代信言(鳳谷)の家督相續まで 新たな「家職」として將軍への「侍講」(月竝講釋)  
 「廟學の事」を任として従五位下大學頭の官職(武士としての格式は「小性組番頭格」)  
 「家業」(=將軍家の裝飾)の現實からの遊離

【將軍綱吉(元祿時代)・新井白石(正徳の治)・將軍吉宗(享保の改革)】

「嫡子」の不在による將軍繼嗣問題江戸時代の經濟發展に對應した「側近政治」の體制化  
 「好學」將軍綱吉ライバル新井白石

제4期는 五代 將軍 綱吉의 「文治政治」에서부터 儒者 新井白石의 「正徳의 治」를

거쳐 8代 將軍 吉宗에 의한 「享保의 改革」에 이르는 에도시대 중기의 정치과정과 겹친다. 이 정치 과정은 에도 초기이래의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체제를 재편해 가는 과정이었다. 綱吉도 吉宗도 德川氏의 嫡流 출신은 아니었고, “家格”을 넘어 등용된 신참관료에 의한 「側近政治」가 정착되어 있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활동도 후대의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활동도 「側近政治」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綱吉은 유학을 장식품으로 애호하였다. 孔子廟를 造營하고, 스스로 유학을 가신들에게 강의하기도 하였다. 강길 이하 린계는 새로이 ①將軍家에 대한 「侍講」,을 「家職」으로 부여받았으며, ②孔子廟의 완성에 즈음하여 釋奠을 직무로 삼는 從五位下大學頭라는 관위를 얻었으며, ③그것으로 인해 무사신분을 얻고, “家格”은 「小性組番頭格」으로 상승하였다. 「小性組番頭格」란 쇼오군의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쇼오군의 측근임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격식이었다. 이 ①②③이 바쿠마츠(幕末)에 이르기까지 린계의 공식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린계는 將軍家の 의례 전문가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안정되었지만, 사회경제의 변화라고 하는 현실로부터는 유리되어 있었다. 그러한 틈을 타서 등장한 인물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였다. 다만, 하쿠세키가 일대만에 몰락한 것과 달리 린계가 영속 될 수 있었던 것은 린계가 장군가에서 여러 대에 걸친 가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5期 《「危機」의 時代》 1758 (寬曆8) 年에서 1793 (寬政5) 年

林家の 繼嗣問題 (嫡子の 不在 : 信言-信愛(28歲로 沒)-신증(嫡孫承祖, 8歲 ; 大學頭官職의 中斷 —— 信敬 (異姓養子) .....衝 (述齋, 異姓養子)

(전소시대) → 寬政의 改革 : 述齋의 등용과 官學의 성립

제4기에는 쇼오군가의 계승이 문제가 되었지만, 제5기에는 린계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大學頭의 世襲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런 가운데 信敬은 제자들 중에서 선발된 異姓의 양자였다. 유교의 관념에 따르면, 이성 양자에게는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지만, 일본의 “이에”는 혈연을 절대 요건으로 삼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오히려 「家業」의 계승이

“이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嫡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는 단절되고 그것은 곧 ‘세록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업」의 계승자에 어울리는 이성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장군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寛政의 改革」을 통해 바쿠후는 林家塾을 바쿠후의 학교로 재편하고, 林述齋를 大學頭로 임명하여 林家에 파송하였다. 述齋는 다이묘 松平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린계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쿠후의 文教를 담당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이전의 린계의 인물들은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林家中興의 祖」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에”의 계승이 타율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근세 일본의 무사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에”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마무리

라잔은 승려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린계 나아가 유학(주자학)을 바쿠후 안에 뿌리는 내리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바쿠후 권력의 창출기에 지배계급 내부에서 장군가를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 질서를 형성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라잔 이후 린계는 장군가에서 의례의 전문가로서 그 지위를 공고화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라잔의 전략은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린계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옹호하였던 신분제=家秩序는 (중국의) 유교에서 말하는 “家”가 아니라, 일본의 근세사회에 특유한 “이에”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관료제도의 근거리에 과거에 의해 유학이 재생산 되었다. 그에 대해 린계의 유학은 장군가에 종속하는 “이에”의 「가적」 내지는 「가학」으로서 재생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일본 유학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번역)